

1970년대 세대의 문화 아이콘 '로봇 태권 브이'

〈로봇 태권V〉의 부활에 숨은 문화사적 의미

박인하 |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만화평론가

일본의 거대 로봇 〈마징가Z〉가 '과학'과 '공업'의 힘을 상징한다면, 그것의 한국적 변용인 〈로봇 태권V〉는 작품전면에 '태권도'를 내세워 정의의 상징이 됐다. 21세기 들어 〈로봇 태권V〉가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로봇의 매력에 태권도라는 한국적 코드가 접합됐고, 〈로봇 태권V〉가 1970년대 세대의 희망과 정의, 꿈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이다.



1978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V〉의 영화관용 포스터.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장 면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주도, 대외지향적 공업화, 불균등성장, 선성장 후분배 전략의 경제개발계획을 군대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집행했다. 쿠데타로 국가가 병영이던 시절, 메이저 유신의 모범을 따른 박정희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은 각각 5개년 계획으로 계량화돼 진행됐다. 1962~1966년까지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7~1971년까지 시행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건설' '농어촌의 근대화' '수출증대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다.

로봇은 중화학공업의 힘을 현실화시킨 문화 이미지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중화학공업육성'이다. 석유화학, 제철, 기계, 전기, 조선 등으로 대표되는 중화학공업은 거대한 공업단지과 그에 걸맞은 공장의 규모 등을 필요로 했다. 박정희 정권은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에게 중화학 공업에 진출할 것을 권유했고, 재벌들은 정부의 특혜와 비호 속에서 부를 축적해나갔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경공업대 중화학 공업비율이 1972년 64 : 36에서 1976년에는 53 : 47로 바뀌어 공업구조가 중화학 공업중심으로 재편됐다.

1970년대 초등학교시절을 보내고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30대라면 정규교육을 통해 지겹도록 반복해서 배웠을 내용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적 아이콘이었다. 거대한 공업지대와 굴뚝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꿈이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소년, 소녀들은 조작된 상징

의 하나인 중화학공업을 통해 국운의 융성을 믿었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에 대한 존경을 배웠다. 우리는 조작된 역사에 살고 있었고, 거대한 강철의 힘은 조작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초였다. 그리고 TV에서, 극장에서 만난 로봇들은 강철의 힘을 현실화시킨 문화 이미지였다.

로봇이 만화에 등장해 소년들의 벗이 된 것은 일본 만화에서였다. 데즈카 오사무가 만들어낸 1960년대의 로봇인 〈철완 아톰〉은 자그마한 체구에 거대한 힘을 소유한 소년들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나이가 고가 창조한 〈마징가Z〉는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로 소년들과 만났다.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거대한 1970년대의 로봇은 변화한 일본의 모습 그대로였다. 1960년대 로봇이 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면, 1970년대의 로봇은 강철의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일본의 공업은 1955년 경공업이 전체 공업생산의 55.4%를 차지한 이후 중화학공업의 신장이 두드러져, 1967년 62%, 1974년 67%로 비중을 높여갔다. 특히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기계공업으로, 1967~1972년에 걸쳐 14.7%에서 32.3%로 배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1972년 초판을 선보인 나이가 고의 〈마징가Z〉는 이런 공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1960년대의 로봇 만화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상적인 로봇을 그리고 있는 데 비해, 〈마징가Z〉는 거대한 공장처럼 생긴 연구소에서 조립된 거대한 기계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마징가Z〉는 바로 '중화학공업의 자신감'인 것이다. 거기에 기계를 움직이는 조정의 메커니즘은 일본 특유의 정교한 기계공업의 힘으로 읽힌다.

한국전쟁, 도쿄 올림픽으로 이어진 일본의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결국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자신감과 기계공업의 힘이 만나 <마징가 Z>를 낳았다. 일본의 기술에 의해 탄생한 '마징가 Z'는 광자력 연구소를 노리고 진격해오는 고대 미케네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수 군단과 맞서 일본을 지켜냈다. 일본의 기술이 고대의 신기를 이겨낸 것이다.

흑백 TV에 연속 방영된 만화영화로 한국에 상륙한 <마징가 Z>는 중화학공업의 자신감과 중화학공업의 이념도 함께 갖고 들어왔다. 햇빛에 번쩍이는 거대한 로봇은 '과학'과 '공업'의 힘을 상징했다. 다른 산업을 희생하며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1970년대 하나의 신앙이 돼 유신의 이념과 함께 학생들의 교과서를 지배했다. 수출만이 살 길이요, 경공업보다는 부가가치가 큰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달 외우던 1970년대의 어린이들은 거대한 공업의 산물인 <마징가 Z>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민족주의의 상징조작으로 탄생한 정의 로봇

철인 28호, 마징가 Z,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그로이저 X 등 일본 만화가 풍미하던 1970년대 '일본' 로봇들에 맞선 '한국' 로봇으로는 철인 칸타우, 로보트 킹 그리고 로보트 태권V가 있다. 이 가운데 1970년대에 출판만화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만들어졌으며, 극장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연속 시리즈로 만들어진 유일한 작품이 <로보트 태권V>였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관용 시리즈였으며, 가장 장기간 동안 속편이 제작된 작품도 <로보트 태권V>다. 특히 1976년 여름방학에 발표된 오리지널 1편 <로보트 태권V> 이후 <로보트 태권V—우주대작전>(1976), <로보트 태권V—수중특공대>(1977)로 이어진 오리지널 2, 3편은 당대 최고의 스타프들이 실력을 자랑했다.

<로보트 태권V>는 일본의 거대 로봇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의 한국적 변용, 특히 1970년대적인 변용의 과정을 거친 한국적인 작품이었다. <로보트 태권V>는 작품의 전면에 '태권도'라는 상징을 내세웠다. 1970년대 '태권도'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을 통합하는 상징으로 육성되는 무예였다. 군대에서 시작된 태권도는 동네마다 도장이 세워지며 어린이를 사로잡았다. 제목부터 태권도를 차별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로보트 태권V>는 작품의 시작을 태권도로 열어갔다.

깊은 산속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주인공 훈이는 거대한 바위를 파괴하는 내공을 익히게 된다. 아버지 김박사, 친구 영희와 함께 하산한 훈이는 세계 태권도 대회에 나가 우승을 차지한다. 훈이나 일본선수를 비롯해 세계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을 이기는 장면은 <로보트 태권V>와 태권도가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천재지만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카프 박사는 붉은 제국을 만들

어 격투기 선수를 납치하고, 그들이 조종하는 로봇을 통해 지구를 공격한다. '붉은 제국'이라는 하나의 수사로 <로보트 태권V>는 선과 악의 이념적 지향을 확연하게 한다. 사막에서 붉은 제국의 로봇들과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태권V 대 검도 로봇, 레슬링 로봇, 격투기 로봇과의 대결이다. 3대 1의 대결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태권V는 태권도의 위력을 여지없이 발휘한다. 역시 최고의 적은 태권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만났던 쇼오 선수의 로봇. 그러나 태권V는 별 어려움 없이 태권도의 위용을 보여준다. 악마 같은 괴물의 형상으로 변한 카프 박사는 용 로봇을 타고 태권V를 공격하지만 태권도의 위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2000년대에 부활한 1970년대의 꿈

카프박사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꿈꾸고 있던 나는 역시 어리석었어. 졌다.

그 많은 로봇을 개발했지만 한국의 태권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 용서해다오. 훈아"라고 이야기하며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중화학공업의 상징이자 정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강철의 로봇 그리고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태권도, 악의 세력인 붉은 제국, 여기에 사람이 되고 싶은 인조인간의 비극까지. <로보트 태권V>는 1970년대의 다양한 문화 아이콘을 보여준다. <로보트 태권V>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1세기 들어 <로보트 태권V>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원작 만화가 20년도 더 지난 2002년 복간됐고, 애니메이션도 제작 중이다. 오리지널 <로보트 태권V>의 특별 상영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동력은 인간의 꿈과 욕망이 투영된 로봇의 매력에 태권도라는 한국적 코드가 접합됐기 때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70년대를 살았던 세대의 머리에 자리잡은 희망과 정의, 꿈의 아이콘인 <로보트 태권V>의 이미지다. 1970년대를 살았던 소년들은 성장해 21세기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그 소년들은 21세기의 콘텐츠로 자신들의 기억에 남은 <로보트 태권V>를 끄집어낸 것이다. 1970년대적 상황에서 태어난 작품이지만 유년시절을 <로보트 태권V>와 함께 통과한 1970년대의 소년들에게 <로보트 태권V>는 만화영화가 아닌 소년 시절 그 자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꿈을 현실로 옮길 차례가 된 것이다. <로보트 태권V>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래서 자연스럽다. ■

박인하 교수는 현재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SICAF의 큐레이터와 기획팀장을 지냈으며, 만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만화를 위한 책> <애니메가 보고 싶다> <누가 캔디를 모았나> <박인하의 즐거운 만화기계> 등을 펴냈다.